『맛과 멋』 피천득

第11回静岡韓国語スピーチ大会

暗誦部門\_指定原稿３.エッセイ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에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이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없는 것이고, 멋있는 것의 반대는 멋없는 것이지 맛과 멋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이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맛과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멋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マッ(味)とモッ(粋)』 ピ・チョンドゥク（皮千得）

【参考】指定原稿３.エッセイ和訳(非公式)

マッは感覚的であり、モッは情緒的である。

マッは積極的であり、モッは秘めやかである。

マッは生理を必要とし、モッは教養を必要とする。

マッは正確的であり、モッは破格にある。

マッはその時だけであり、モッは余韻がある。

マッは浅く、モッは深い。

マッは現実的で、モッは理想的である。

情欲生活はマッであり、プラトニックラブはモッである。

しかしマッとモッは反対語ではない。実際、その語源は同じであるのかもしれない。美味しいことの反対は不味いことであり、粋なことの反対は不粋なことであって、マッとモッが反対になるものではない。

マッとモッは、リアルとロマン同様、美しい調和を成すものである。

しかしマッさえあればいい人もいれば、マッがなくともモッさえあれば生きていける人もいる。

マッは身をもって体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モッは眺めているだけでもいい。

マッに飽きやすい私は、モッのために生きていく。

맛：味、面白み、気持ち。 멋：洗練された気品、粋、風雅。

은근하다: 慇懃（いんぎん）だ、表に出さずに心で深く思う、密やかだ。

파격: 破格、格式にこだわらないこと。